

정보력과 인맥관리 <강한 여자, 약한 남자 -4 편>

신경제에서 돈관리는 아내들이 완전 장악했다고 보면 된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여자들이 돈을 벌 기회가 없었고 평생 자식 키우며 집안일 하느라 모든 경제권은 남자에게 있었다. 심지어 매일매일 남편에게 하루 시장비며, 애들 쓸 돈을 구걸하다시피 얻어 쓰는 집들이 많았다. 남편의 심기가 불편하면 눈치보기에 바쁘고 남편 비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왕권 시절이었다. 하지만 신경제에서 모든 자금 지출은 아내의 최종 결재가 나와야 하는 시대다. 이유는 단 하나. 여자가 돈을 벌기 때문이다.

경제권은 불가항력으로 아내에게 빼앗겼지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두번째 요소인 정보력과 인맥관리가 있다. 옛날 아버지들은 개뿔(?)도 없으면서 왜 큰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 어머니는 집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아버지 이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한마디로 <무식한 여편네>였던 것이다. 그 시대의 아버지 상은 쥐꼬리만한 월급날이면 퇴근 길에 막걸리 한잔 걸치고 거나하게 취해서 한손에는 자반 고등어 한마리, 다른 한 손에는 아이들 줄 호떡 한 봉지를 들고 비틀비틀 골목길을 걸어올라가는 뒷모습이 연상된다. 그래도 아내며 자식들은 아버지를 하늘같이 존경했고 자랑스러워 했다. 심지어 허구한 날 밥상을 집어던지고 마누라를 두들겨 패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다들 그렇게 사는줄 > 알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보력 부재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이었다. 하지만 그런 호시절은 지나갔다. 일단 여자들이 배울만큼 배웠다. 심지어 남자들보다 평균 학력이 더 높다. 거기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므로 더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잘난 사람도 더 많이 알고 있다. 결정적인 것은 인터넷의 발달이다. 힘이 세다거나 목소리가 크다고 우길 세상이 아니다. 남편의 주장은 즉석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진위여부와 남편의 지적 수준을 즉시 알 수 있다. 별로 유식하지도 않는 남편에게 눈치보며 굳이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료로 상담해주는 친절하고 잘난 전문가들이 24 시간 대기중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정보구매력이나 정보 공금증은 여성들이 훨씬 강한 것 같다. 선천적으로 여성들은 궁금하면 못참는 체질인가보다. 이러니 자신의 전문분야는 물론 재테크, 부동산, 육아, 입시, 문화,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연예계 소식까지 모르는 정보가 없다. 상대적으로 정보 수집에 제한적이고 고집스러우며 관심분야에만 열을 올리는 남자들은 한정된 정보력으로 취약해지는 것이다. 잭 웰치의 말대로 <정보의 편집광>만이 성공하는 세상이다.

신경제에서 정보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맥관리일 수 있다. 어찌면 일류 고등학교, 일류 대학교, 일류 대학원, 일류 기업, 전문 직종, 일류 집안 등 일류를 집약하면 인맥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흔히들 신경제의 성공 키워드를 <자신을 팔아라>로 규정한다. 이제는 집단에 잘 적응하거나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회사의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회사 자체가 불안정하고 노사 서로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종 업종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존재로 부각되고, 당신을 연결시켜 줄 사람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목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자신을 믿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겸손의 미덕보다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힘을 갖기 위해서는 힘을 느껴야 한다. 경영 컨설턴트 톰 피터스는 “오늘부터 당신 자신이 브랜드다. 당신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마케팅 책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와 창조력과 전문성이 있어야 자신을 팔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신을 팔기 위해서는 어느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이 <인맥관리>다.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일예를 들어보자. 인터넷 사이트에 www.sixdegrees.com 이 있다.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명단을 입력하면 여섯단계의 인맥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단 인맥이라는 <줄>은 연결되지만 <관리>는 내가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보다 더 강력한 것이 SNS (Social Network System)이다. 어지간한 여자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등을 할 것이다. 일촌으로 맺어진 사람만도 일백명을 훌쩍 넘긴다.

이런 관점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듯 하다. 첫째는 사람을 사귀는데 스스럼이 없는 것 같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방 대화가 통한다. 몇번 만나지 않았는데도 서로가 반말을 한다. 대충 10 살차이는 그냥 막 먹는 것 같다. 시장 바닥은 물론, 교회 주방에도 대부분이 반말이다. 어느 나라 족보인지 위도 아래도 없다. 만약 남자들 세계에서 몇살 어린 놈이 반말을 하면 삼대까지 의절을 하거나, 흰 장갑을 얼굴에 던지면서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권총 결투를 신청했을 것이다. 남자들은 사소한 자존심에도 목숨을 거는 별종들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회노애락의 다양한 표현력을 적재적소에 나타낸다. 웃음과 눈물처럼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연결할 무기는 없다. 여자의 웃음과 눈물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부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세째는 엄청난 수다의 에너지다. 우리집 여자들도 수다를 떨 때는 피곤하거나 지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내와 딸들은 거의 매일 한시간 이상을 전화로 수다떠다. 여자들의 수다에 동원되는 풍부한 이야기꺼리와 인물들은 그녀들의 인맥관리에 상당한 정보원 구실도 한다. <인맥 관리>를 할려면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간에 먼저 만나야 하고 대화하여야하고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이어야 하는데 이 모든 조건을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맥관리의 격차는 더 심해진다. 그리고 보면 정보력과 인맥관리도 여성들의 압승이 아닐까?